

## ● 한우협회,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우 배합사료 OEM 공급 추진



전국한우협회가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OEM 공급을 추진한다. 각 도지회와 연계해 사료 생산이후 운송 및 거세, 초음파 등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우 생산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농가 소득을 좌우한다.

한우협회가 구상중인 사료 공급방식은 협회가 생산 공장을 선정해 사료 공식을 제공하고 단가 결정과 품질을 책임지는 등 생산까지만 참여한다. 생산된 사료는 도지회 및 시군지부가 농가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운송·판매하는 형태다. ODM방식도 거론되고 있지만 농가 주도 사료생산이라는 방향성과 거리가 멀어 채택될 확률은 적다.

한우협회는 이달 내로 OEM사료 생산업체를 공고하고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중 열릴 이사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료 공급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협회 사료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군지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각 지부에서는 질 좋고 저렴한 사료를 쓰겠다는 강한 의지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 한우자조금, 강원 영월서 2018 한우공감 캠핑 페스티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보보스캇 오토캠핑장에서 2018 한우 공감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4년 처음 개최한 이래로 5회째를 맞은 한우캠핑페스티벌은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캠핑 대표 메뉴로 한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행사 전 참가팀에 2박 3일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와 함께 구이용 한우고기와 한우레시피북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우자조금은 캠핑에 참가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이외에도 한우를 주제로 한 캠핑요리를 선보이는 한우 캠핑요리대회를 비롯해 한우농장체험, 한우푸드트럭을 활용한 무료시식회와 한우버거 만들기, 한우명랑운동회, 숲속콘서트 등 2박 3일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예로부터 우리 한우는 부위와 요리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 캠핑요리로도 손색이 없다”라며 “앞으로 한우가 캠핑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소비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돈협회, 양돈장 냄새 잡기 위한  
● 전문 컨설턴트 채용

대한한돈협회는 축산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2명 선정·채용했다.

이번에 전문 컨설턴트로 선정된 김동수 컨설턴트는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에서 가축분뇨 업무를 20년간 수행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단장으로 활동하여 고품질 액비 생산과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조성백 컨설턴트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업무를 25년간 추진하였으며, 현재 (유)축산냄새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인 축산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본 사업은 최근 축산냄새 민원이 2년간 2배 이상 대 폭 증가하고, 제주도, 용인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돈장 환경개선 지도(가축분뇨처리,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 정부 환경 개선사업 지정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경기, 충남지역의 농가 30호에 대하여 선정된 전문 축산환경설턴트가 축산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악취저감을 추진한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협회에서 개별농가에 직접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돈자조금, 정동극장과 함께  
● 한돈 문화나들이 행사 성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해 전통예술 공연장인 정동극장과 함께 문화마케팅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6월 29일 정동극장 야외마당에서 전통 공연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동에서 즐기는 한돈 문화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날 한돈 저지방 웰빙 부위와 목살을 이용한 다양한 핑거푸드를 선보이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정동극장 상설공연인 '궁:장녹수전' 티켓을 제공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돈자조금은 전통극장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정동극장과 다양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낙농육우협회, 정글비트와 협약 ● K-MILK 사회공헌사업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주)이노브릿지는 7월 5일 정글비트와 K-MILK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교류하고, 애니메이션 정글비트와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 'K-MILK'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 마케팅을 상호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FTA 확대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선생의 유아사업 자회사 (주)이노브릿지와 손을 잡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낙농산업도 지키는 데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K-MILK는 국산우유만을 사용하는 유제품 또는 국산우유만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하는 업체를 인증하는 마크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 및 유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 ● 우유자조금, 소비촉진 홍보행사 ● 우유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잠실 롯데월드몰 아트리움 광장에서 우유소비촉진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밀크어트(Milk-et)'를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는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우유의 효능을 알리고, 건강한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40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마련됐다.

가족,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겼다. 우유 정보 전시와 각종 경품 이벤트, 시음·시식 등이 상시 운영됐으며, 메인 행사로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씨가 출연한 '밀크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양정원 씨는 우유를 활용한 식단과 함께 다이어트 노하우, 밀크 스트레칭 방법 등을 전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돕는 우리 우유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매일 두 잔의 우유 섭취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요요현상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밀크어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육우자조금, 쇼핑몰 오픈 기념  
• 최대 50% 통큰 할인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리땅에서 자란 우리 소’ 육우의 판매와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육우 쇼핑몰을 오픈한데 이어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 품목을 최대 30~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행했다.

육우 전문 쇼핑몰 우리육우에서는 육우의 부위나 기존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30% 할인이 적용되며 모든 구매고객과 5만원이상 결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했다.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품질을 인증 받은 우리육우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육우의 소비가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육우 쇼핑몰에서는 구이 류, 카레 · 산적용, 불고기용, 찜 · 장조림용, 특수부위, 뼈 부위 등 모든 육우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계란자조금, 이웃과 나누는  
• 에그투게더 캠페인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농가와 셰프, 소비자가 함께하는 에그투게더 (Egg Together) 캠페인을 개최했다.

에그투게더는 계란자조금 주최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계란을 함께 먹자’, ‘계란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아 계란산업 종사자가 계란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선 연천시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안일농장과 동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고려비엔피, 2017년 TV조선 아이엠셰프 우승자 김예림 셰프가 약 2250판의 계란을 서울 구로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특히 김예림 셰프는 6월 16일 서울푸드페스티벌에서 계란요리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계란으로 기부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더운 여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과 불우한 이웃이 완전식품인 계란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 바란다”며 “계란과 같이 좋은 식품을 많은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에그투게더 캠페인에 소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